

치아미백은 여름 휴가의 필수조건이다~!

기사입력 2009-07-14 19:18

[서울신문]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멋진 휴가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방학을, 직장인들은 일년 중 한번뿐인 여름휴가 기다리며 멋진 바캉스와 함께 뜨거운 연애를 꿈꾸고 있다면 빼놓지 말고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

평소 꿈꾸던 이상형의 상대를 만났을 때, 아무리 근육질 몸매나 환상적인 라인을 겸비했다라도 치아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누런 치아를 갖고 있다면 몇 마디 말을 나누기도 전에 이미 상대방의 마음은 저 멀리 달아나버리고 만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치과를 방문하여 간단한 스케일링으로 치석과 니코틴을 제거하거나 특수광선 미백기술로 하얀 치아를 갖는 것은 어떨까? 치아미백은 치아에 착색된 색소를 빼냄으로써 치아의 색을 밝고 환하게 만드는 기술로 보통 3일에 걸쳐 시술받았을 때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은 1Day 화이트닝 기술로 단 하루만에도 하얀 치아를 가질 수 있다.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현 원장은 "치아미백은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기술이지만 치아의 균일한 미백과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치아미백 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며 "미백을 받고 난 후에는 간단한 터치업 으로도 하얀 치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담배나 착색음료를 섭취할 때에는 본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 서울신문 구독신청] [☞ 나우뉴스 바로가기] [☞ 나우뉴스TV 바로가기]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